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문법교육의 한 방법

팜티튀린 (Pham, Thi Thuy Linh)*

1. 들어가기

바꿔 쓰기(Paraphrase)란¹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법을 일컫는다. 학습자가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문법 요소를 사용한 예시를 듣거나, 어려움을 일으킨 단어를 설명하거나, 전달하려는 부분을 대체하거나 하여 표현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바꿔 쓰기 활동은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의 기능(유형)을 연습을 하고 외국어 문법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욕구가 커지며, 동시에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 수행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의 신장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어, 문법 등의 언어적 지식들도 중요하고, 학습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문법 교육에 있어서 문법 학습 과정 통해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문법을 사용하고 그 문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다양한 표현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언어적 기능을 가진 바꿔 쓰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효과들을 가진 바꿔 쓰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능력 향상에 바꿔 쓰기 활동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2. 외국어 교육에서의 바꿔 쓰기의 이론적 배경

2.1. 바꿔 쓰기의 개념과 특성

바꿔 쓰기(Paraphrase)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독일어 분야에서 연구되

* Hochiminh Cit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Information Technology 教授兼系主任

¹ Paraphrase는 표현을 다양화시켜 변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표현법이다. Paraphrase의 이러한 특성은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언어 학습 전략에 따라 바꿔 쓰기, 바꿔 말하기, 요약하기, 번역하기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연구는 같은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에 출발점을 두고 언어 지식 차원에서의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사용 능력에 페러프레이즈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페러프레이즈라는 용어 대신 ‘바꿔 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었다.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는 ‘맥락 바꿔 쓰기(kontext paraphrase)’, 라츠(Rath; 1975, 1979)와 벤젤(Wenzel, 1981)은 ‘의사소통적 바꿔쓰기(komunikative paraphrase)’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기의 구조와 기능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에 코트쉬와 킬리히(Gulich & Kotschi; 1987; 1996)는 텍스트 재작성 행위로서 바꿔 쓰기의 특징과 기능을 대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바꿔 쓰기의 또 다른 의미론적 유형화로는 분덜리히(Wunderlich; 1980)에서 발견된다. 그는 ‘어휘적, 문체적, 화용적, 숙어적, 통사적, 그리고 통사·의미적 바꿔 쓰기를 구분한다. 니더(Nida, 1982:47)는 바꿔 쓰기는 동일한 말 (또는 문장)을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언어적인 형태(form)에 초점을 둔 글라이트만과 글라이트만(Gleitman, L & Gleitman, H, 1971)에서는 바꿔 쓰기는 의미 변함 없이 짧거나 더 명료한 다른 단어나 문형을 사용하여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활동이라며 바꿔 쓰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베렌스(Behrens, 2009)는 바꿔 쓰기는 자신의 문체를 사용하여 본래와 다른 형식을 가진 문장 또는 텍스트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하는 표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접근에서 연구한 타론(Tarone, 1977)에서는 바꿔 쓰기가 의사소통 전략의 하나이며, 학습자가 언어로 발화를 하는 중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거나 설명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일으킨 단어나 발화 부분을 대체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바꿔 쓰기는 한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형태’라는 것은 원문보다 더 짧거나 길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바꿔 쓰기가 단어 단위, 통사 구조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그 단위들이 원문보다 축소, 변형 그리고 확장되어 변화할 수 있지만 의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법에 주목하면서 바꿔 쓰기란 ‘단어, 통사 구조, 문장에 확장, 변형, 축소 등의 변화를 주나, 동일 맥락에서 의미를 유지하며 다시 쓰는 것’이라고 정리를 내는 것이다.

바꿔 쓰기는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이를 수 있다. 니더(Nida, 1982)에 의하면 바꿔 쓰기는 원문 텍스트 내에서만 통사·의미 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 명료하고 정확한 원문 의미의 파악을 위한 바꿔 쓰기는 풀어쓰기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기도 하고, 동의어 표현(synonymous expressions)을 생성해 내는 언어적 장치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표현으로 된 자료나 텍스트를 읽고 나서 학습자가 전달받은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이 소유하게 된 그 정보들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 그 자료나 텍스트를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글쓰기를 하거나 발화하는 행위는 모두 바꿔 쓰기라고 보았다. 이것은 전문적인 단어를 읽은 후 그 뜻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자신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다른 단어나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구성해내는 것도 바꿔 쓰기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를 가진 바뀌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읽은 텍스트 또는 들은 담화 내용을 이해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위한 단어 변화, 통사 구조 변화 그리고 문장 변화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활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서 그들을 의사소통에 적용하여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모두 바뀌 쓰기의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2.2. 바뀌 쓰기의 유형 및 범주

바뀌 쓰기의 의미와 특징은 일찍부터 텍스트언어학에서 활발하게 검토되었다. 단어와 문장 차원에서 바뀌 쓰기의 유형은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와 분덜리히(Wunderlich, 1980), 코트쉬와 켈리히(Kotschi & Gulich, 1983)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게호이어(1969)는 바뀌 쓰기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 ▶ 최소변형을 통한 바뀌 쓰기
 - a. 한 어휘를 축소 또는 확장하기
 - b. 어휘요소를 유지하면서 구문 바꾸기
 - c. 동의어 및 관용구, 구체적인 표현/비유적 표현 등을 교체하기
- ▶ 전체를 바꾸 쓰기
- ▶ 최대변형을 통한 바뀌 쓰기: 예, 논문 요약하기

바뀌 쓰기 유형의 또 다른 목록은 분덜리히(1980)에서 발견된다. 분덜리히는 ‘어휘적, 문체적, 화용적, 숙어적, 통사적, 그리고 통사 · 의미적 바뀌 쓰기’를 구분한다. ‘어휘적 바뀌 쓰기’는 동의어(synonym)를 사용하는 경우이다(예, 때리다/치다). 동의어들이 다양한 언어 변종으로 표현되는 경우(예, 때리다/갈기다)를 ‘문체적 바뀌 쓰기’라고 한다. ‘맥락적’ 또 ‘화용적’ 바뀌 쓰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숙어적 바뀌 쓰기’는 어휘적 바뀌 쓰기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한 단어가 숙어적 또는 관용구적 어법으로 대체되는 차이가 있다(예, 임신하다/배가 부르다, 쉽다/누워서 떡 먹다,...). ‘통사적 바뀌 쓰기’는 동일한 내용어들이 상이한 통사적 구조와 기능에서 능동/수동과 같은 관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성만, 1998, 61-62). 코트쉬와 켈리히(Kotschi & Gulich, 1983)는 바뀌 쓰기 표지의 특수한 기능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².

- ▶ 확장: y가 x보다 더 많은 의미자질(의소)을 가지고 있으며 더 복잡한 시니피앙을 나타낸다.
- ▶ 축소: x의 의소는 y의 의소 속에 집약되어 있다.
- ▶ 변형: 확장도 축소도 아닌 경우를 말한다.

바뀌 쓰기는 원문 텍스트 내에서만 통사 · 의미 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이에 관련하여 이성만(1998)은 운게호이어(1969)와 코트쉬와 켈리

² 코트쉬(Kotschi, 1986)는 바뀌 쓰기를 하는 것은 xRy 형태의 복잡한 발화문을 산출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x와 y는 두 발화문이고 R은 의미론적 관계로 정의된다. 윤다운(2006)에서 인용.

히(1983)에 기대어 바꿔 쓰기의 기능을 통사적 바꿔 쓰기 · 의미적 바꿔 쓰기 · 화용적 바꿔 쓰기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가 있는데 통사적 바꿔 쓰기로는 같은 언어 수단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동일한 사태를 재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순수 형식적인 바꿔 쓰기이다³. 의미적 바꿔 쓰기에서는 의미소(sememe)의 의미를 바꿔 쓰기 하여 설명한 결과인데, 즉 바꿔 쓰기는 하나 이상의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통사론적 단위이자 동시에 하나 이상의 의미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단위이며, 단어 관점에서 확장의 과정, 그리고 바꿔 쓰기 결과물 관점에서 확장, 축소 변형의 과정이 모두 의미적 바꿔 쓰기의 관련이 있다⁴.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바꿔 쓰기의 통사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 차원에서는 원문 텍스트를 가장 큰 단위인 문장 내에 속하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형으로 구분한다면 그 안에서 각각 축소 · 변형 · 확장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 바꿔 쓰기의 경우는 확장과 변형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문장의 경우는 축소 · 변형 · 확장의 유형이 모두 있을 수 있다.

① **확장:** 확장의 바꿔 쓰기는 단어 차원에서는와 문장 차원에서는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텍스트에서 제시한 단어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어를 풀어쓰거나 확장하여 쓰기를 한다. 또한 문장의 경우 간략한 원문 문장의 내용을 좀 더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에 관련된 예시를 덧붙여 의미를 더 강조화시킨다. 그리고 확장 바꿔 쓰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원문의 내용 차원뿐만 아니라 형식 확장은 원문보다 더 길고 구체

³ 통사적 바꿔 쓰기에 관해서 이성만(1998)에서는 어휘 변화와 능동·수동 변형의 몇 가지의 예시로 설명하였다.

- ㄱ. 철수는 민수보다 더 젊다/ 더 얌전하다.
- ㄴ. 민수는 철수보다 더 늙었다/ 덜 얌전하다.
- ㄷ. 명희는 예찬의 숙모/ 여선생이다.
- ㄹ. 예찬은 명희의 조카/ 학생이다.
- ㅁ. 다정은 진효에게 차를 주었다/ 팔았다/ 빌려주었다.
- ㅂ. 진효는 다정에게 차를 얻었다/ 샀다/ 빌렸다.

여기서 (ㄴ)은 (ㄱ)의 바꿔 쓰기이다. 마찬가지로 (ㄹ)과 (ㄷ), (ㅂ)과 (ㅁ)은 서로 바꿔 쓰기 관계에 있다. ‘더 젊다/더 늙었다, 숙모/조카, 주다/받다’ 등은 이른바 어휘적 변환이다. A가 B보다 더 젊으면 당연히 B는 A보다 더 늙었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변환 표현이 선택되며 A와 B의 통사적 위치만 교체될 수 있다. 이점은 능동/수동 관계의 특징과 일치한다. 이성만(1998: 68)

⁴ 여기서 이성만(1998: 70)에서 바꿔 쓰기의 기본형태는 PAR (x, y)로 형식화되고 간단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ㄱ. 확장에 의한 바꿔 쓰기: $x < y$
x: 대통령 y: 국가의 최고 통치자
x 뉴스 표제 y: 뉴스 본문
- ㄴ. 요약/ 응축(압축)에 의한 바꿔 쓰기: $x > y$
x: 이 텍스트의 정보들로 텍스트 주제를 추론하는 과정
y: 주제 추론하기
- ㄷ. 변형에 의한 바꿔 쓰기: $x \cong y$

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 활동에서는 단어 보충 · 문장 보충 · 문장 예시가 빠질 수 없는 항목들이다.

② **변형**: 변형에 의한 바뀌 쓰기는 원문보다 너무 길거나 짧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과 길이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그 원문에 속하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장에 변화를 주어 바뀌 쓰기를 하는 것이다.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의미가 비슷한 문법 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변형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 내기 위해서는 어순 전환 또는 문형 바꾸기도 가능하다. 즉 주동문을 수동문으로 변형시키거나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변형시키는 것도 변형 바뀌 쓰기 중 한 가지의 예이다. 따라서 변형 바뀌 쓰기 활동에서는 무엇보다도 문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바뀌 쓰기의 변형 유형은 단어 변형 · 통사 구조 변형 · 문장 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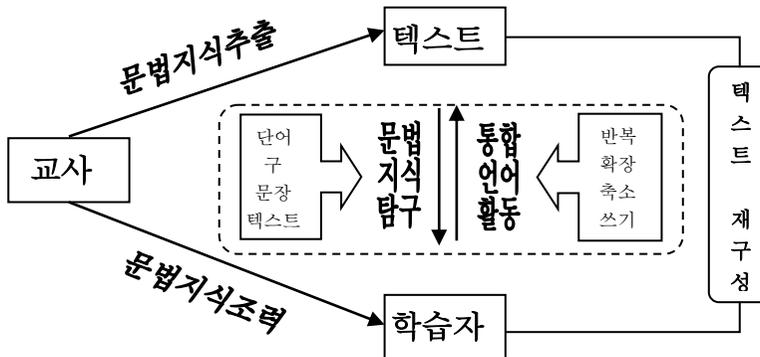
③ **축소**: 축소 바뀌 쓰기는 원문의 내용의 전부를 짧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단어나 구를 제거하여 일련의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항목들이 바로 문장 요약 · 도입 표지 · 내용 요약 질문이다. 원문의 전체 내용을 보다 명료하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단의 끝부분이나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문장을 제시하는 것이 문장 요약이다. 도입 표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요약해서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문 내용 중에 자신이 강조하려는 부분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도 축소 바뀌 쓰기의 한 유형이다⁵.

2.3. 바뀌 쓰기 연구의 이론적 배경

손버리(Thornbury, 2000)는 제2 언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문법 교수를 위하여 통합적인 문법 학습 TTT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 TTT 모형에서 학습자들은 먼저 교사가 제시한 과제(task)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해온 언어의 특징을 확인하기 의사소통 과제(task)를 사용한다. 학생들은 처음의 과제나 그와 유사한 과제를 다시 수행하기 전에, 이들 특징에 대한 교수(teach)를 받고 연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인 문법 지도도 포함한다. 시도, 오류, 피드백의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산출물은 정확성을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다. 그리고 손버리(2000)에서도 TTT 모형으로부터 텍스트(1)-교수-텍스트(2)(text-teach-text)를 확보하는 과정은 학습자들에 문법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손버리에 따르면 이 모형에서는, 첫 번째 텍스트는 교사의 텍스트이고, 두 번째 텍스트는 학습자의 텍스트이다.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는 첫 번째 텍스트에 있으며, 두 번째 텍스트에서 다시 재종합된다. 손버리(2000)에서 제시한 문법 학습의 TTT 모형과 텍스트-교수-텍

⁵ 축소 바뀌 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다운(2006)에서 참고.

스트 모형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본고가 제시하는 바꿔 쓰기 활동은 손버리의 문법 학습 모형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바꿔 쓰기 활동은 TTT 모형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법 의식 상승 과정에서도 효과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손버리의 연구에서는 바꿔 쓰기의 문법 의식 상승에 대한 효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손버리(2001)은 바꿔 쓰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검증된 결과가 바꿔 쓰기 활동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손버리는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는 초점이 단어에서 맞추어 텍스트로 이어가는 것이다. 손버리가 설계한 과제에서는 짧은 텍스트부터 길어진 텍스트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는 단어(word patterns) 유형부터, 구(phrase patterns) 유형과 그리고 문장 유형(sentence patterns)으로 실시하였고, 학습자들이 이 각각 항목을 찾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단어를 찾아 목록을 만들었다. 학습자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찾은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텍스트를 재구성하였다.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갈수록 학습자들은 단어 단위와 문장의 단위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하였으며, 원래의 텍스트보다 짧거나 길게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반복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 문법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손버리가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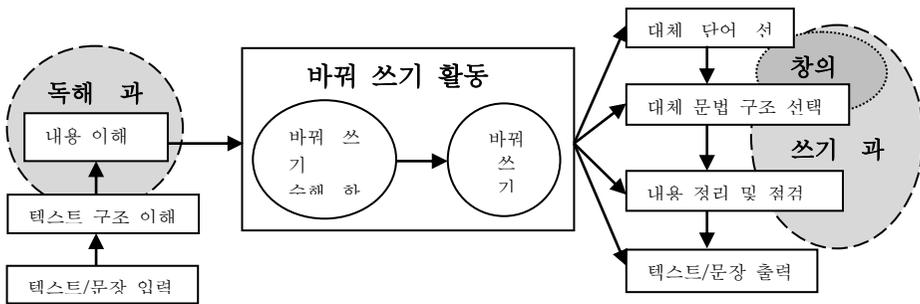
<그림 1> 손버리(Thornbury, 2001)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

이러한 일련의 의식 상승 과제는 학습자의 내적 문법(mental grammar)을 재구성하여 특정 문법적 항목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손버리의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손버리는 제시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의 형식도 바꿔 쓰기 활동과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단어, 구와 문장의 유형을 알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각각에 관련된 문법 지식들을 연습하고 흡수하게 된 다음에 그들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손버리가 논의한 ‘내적 문법을 재구성하여 문법적 항목에 인식을 함양함’을 바꿔 쓰기 활동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보다 짧거나 길게 재구성하는 방법도 바꿔 쓰기의 축소, 확장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바꿔 쓰기 활동은 문법 의식 상승의 한

활동이 될 수 있고,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4.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바뀌 쓰기”의 교육적 의의

글라이트만과 글라이트만(Gleitman, L & Gleitman, H, 1971)에서는 효과적인 바뀌 쓰기의 전략을 위해서는 필자가 체계적으로 단어 수준, 문장 수준 바뀌 쓰기의 각 단계에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키스너(Kissner, 2006)의 바뀌 쓰기와 수반된 텍스트의 인식과 생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부터 바뀌서 다시 쓰기까지를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며, 학습자의 머리속에 입력된 어휘적, 통사적·의미적인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다시 점검하여 같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바뀌 쓰기의 과정

연구자들의 의하면 바뀌 쓰기는 읽기, 쓰기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단어·문법 차원과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듯 언어 습득의 각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바뀌 쓰기는 외국어 교육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학습 내용의 다양성 또는 언어 사용 능력 각 기능의 상호성을 가진 활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바뀌 쓰기는 응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드(Stede, 1996)는 바뀌 쓰기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그에 따라 바뀌 쓰기는 품사 학습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스테드(1996)에서 단어-품사 바뀌 쓰기에 대한 논의는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에 의하면 단어 수준 바뀌 쓰기는 유의어 대체와 품사 바꾸기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스테드(1996)가 언급한 품사 바뀌 쓰기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문장 속에서 기능하는 성분인 명사를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는 것이다. 품사 성립 규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이 유형에 속하고,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품사 통용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스

메이비(Smaby, 1970)는 문법을 주목하면서 ‘paraphrase grammars’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이라는 유형을 중심으로 바꿔 쓰기를 언급한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주동문과 수동문을 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들도 ‘paraphrase grammars’에 속한 전형적인 문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 또는 문장의 태 전환이라는 내용은 바꿔 쓰기 활동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메이비(1970)에서는 바꿔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주동문과 수동문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주동문과 수동문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면 문법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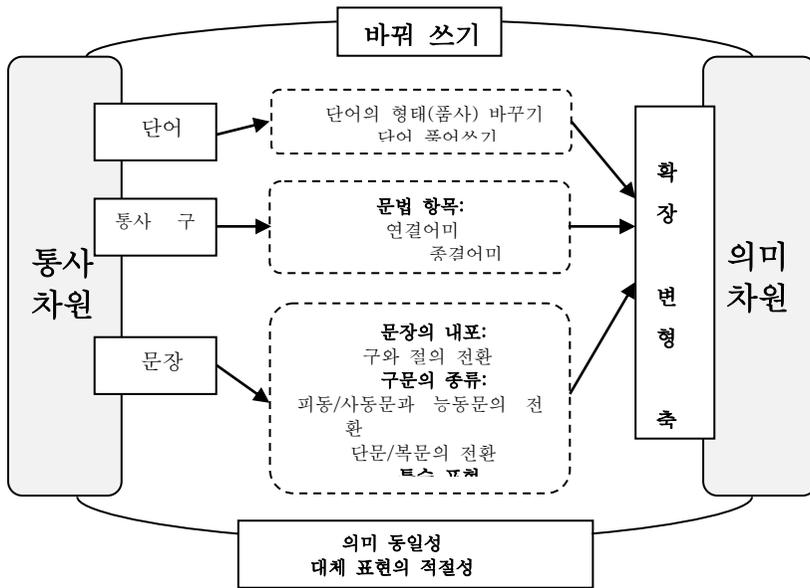
품사 바꾸기와 주동문과 수동문 전환은 바꿔 쓰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스테드(1996)과 스메이비(1970)의 논의들은 한국어 문법교육에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품사 통용과 피동 - 사동 표현과 연관성이 있다. 한국어 문법교육에서는 품사 통용 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이 성분들로 구성되는데 그 성분들이 바로 단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문장 차원에서는 그 단어의 성질을 변하여 다른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형용사>

나.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관형사>

위 예시를 보면 (가)와 (나)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 하지만 (가)에서는 ‘엄청나다’라는 단어가 서술어 역할을 한 형용사이지만 (나)에서는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하나의 단어가 한 문장에서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품사 통용은 바꿔 쓰기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국어교육에서 품사 통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문법교육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장 성분 구성 혹은 품사 성립에 대한 교육 내용이 연구된 바 있지만 그 문장이 구성된 성분들과 품사들은 문장에서 서로에게 전환해 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관형사와 형용사 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교수 -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의 형태 바꾸기 (품사 바꾸기)’가 바꿔 쓰기 활동에서 적용 가능 범주로 선정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문법 지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문법을 응용적으로 수행하여 문법 능력을 신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동문 · 수동문을 전환하는 방법은 한국어 문법 학습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피동문, 사동문과 주동문을 연습하여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바꿔 쓰기에서 사용 가능한 유형들과 한국어의 문장 차원에서의 바

뀌 쓰기가 가능한 범주들을 다시 정리하여 다음 <그림 3>와 같이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3>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바뀌 쓰기 적용 가능 범주

현행 한국어 교육에서는 바뀌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지는 않지만 교수 과정에서는 바뀌 쓰기 기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어떤 문장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동화나 만화와 같은 한국의 옛날이야기를 학습자 자기의 말로 바뀌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수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현재의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내용의 ‘어휘 및 문법, 쓰기’ 영역에서는 바뀌 쓰기와 관련된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 고르기’와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 고르기’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바뀌 쓰기가 외국인 학습자의 문법 능력 평가의 한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뀌 쓰기 활동은 문법 교육에 적용할 가능성을 보인다.

3. 바뀌 쓰기 활동의 실제

3.1. 교수 · 학습 내용 체계

앞에서 바뀌 쓰기에 대해서 살펴 봤듯이 바뀌 쓰기 유형은 크게는 세 유형 (확장 · 변형 · 축소), 작게는 아홉 유형 (단어 보충 · 문장 보충 · 문장 예시 · 단어 변형 · 통사 구조 변형 · 문장 변형 · 문장 요약 · 도입 표지 · 내용 요약 질문)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유형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바뀌 쓰기 교수 · 학습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내용 체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확장

- 단어 보충: ▶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
 ▶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더 보충하여 표현한다.
- 문장 보충: ▶ 단어와 통사 구조를 포함한 문장을 확장하여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설명한다.
 ▶ 부족한 정보나 필수적인 정보를 보충하여 문장의 의미를 확장한다.
- 문장 예시: ▶ 원문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예시를 제시한다.
 ▶ 앞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② 변형

- 단어 변형: ▶ 원문에서 제시한 단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한다.
 ▶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꾼다.
- 통사 구조 변형: ▶ 의미가 비슷한 문법 항목으로 대체한다.
- 문장 변형: ▶ 문장의 어순을 이동하여 구문을 변형시킨다.
 ▶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거나,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
 ▶ 단어와 통사 구조의 변형을 통하여 원문과 완전히 다른 형식의 문장으로 바꾼다.

③ 축소

- 문장 요약: ▶ 문단의 보다 명료한 이해를 위해, 원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 도입 표지: ▶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요약하여 미리 제시한다.
- 내용 요약 질문: ▶ 자신이 강조하려는 부분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간략하게 표현한다.

3.2. 바꿔 쓰기 활동의 세부 유형

한국어 문법교육의 한 방법으로 하여 바꿔 쓰기 활동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바꿔 쓰기 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와 코트쉬 & 귤리히(Kotschi & Gulich, 1983)에서는 의미적 기준을 활용하여 바꿔 쓰기를 확장·변형·축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스테드(Stede, 1996)은 바꿔 쓰기의 단계를 단어 바꿔 쓰기, 구문 바꿔 쓰기와 문장 바꿔 쓰기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바꿔 쓰기 활동의 체계를 단어 바꿔 쓰기·통사 바꿔 쓰기·문장 바꿔 쓰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3.2.1. 단어 바꿔 쓰기

키스너(Kissner, 2006)에 따르면 ‘단어 바꿔 쓰기’는 바꿔 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의 여

러 과정 중에서 쉽게 익힐 수 있는 단계이다. ‘단어 바뀌 쓰기’는 ‘단어 변형’과 ‘단어 보충’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휘 변형’에 있어서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며 ‘단어 보충’에는 ‘단어 풀어쓰기’가 있다. 본고에서는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와 단어 풀어쓰기 외에 접속 부사와 관용어를 더 보충하여 단어 바뀌 쓰기의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에서 부사에 속하는 문법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특히 유의 관계를 지니는 접속 부사의 발달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단어를 관용어로 바뀌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접속 부사와 관용어는 단어 바뀌 쓰기 활동에서 활용되기 쉬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1)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

단어 바뀌 쓰기에서는 원문의 단어를 문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 유형은 한국어 문법의 통사 통용에 관련있는 예를 들면 명사를 동사,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는 것과 같다. 특히 한국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분류에 소속된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 그리고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 품사를 다른 품사로 혹은 이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뀌 쓰려면 학습자는 일정한 문법적 규칙, 또는 그들을 기능하게 하는 조사와 어미를 활용하는 문법 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단어 바뀌 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야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서 바뀌 쓸 문장이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문법 지식과 직접 관련된 조사, 관형, 부사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뀌 쓰기를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문맥에 맞게 연결되었는지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최종적으로 전체 문장을 읽으며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적절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어 바뀌 쓰기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단어 형태 바꾸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그는 이기적이다. <명사>
→ 그는 이기적인간이다. <관형사>

(남기심 · 고영근, 2009:187)

- (2)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수사>
→ 야구를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모였다. <관형사>

사례 (1)과 (2)는 단어 다른 형태로 바뀌 쓰기의 예이다. (1)과 같이 명사 ‘이기적’은 관형사 ‘이지적(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다섯’은 수사이다. (2)의 아래 문장의 ‘다섯’은 명사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사이다. 학습자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올바른 문장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어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문장을 만들 때 그 품사들을 규칙에 맞게 재배치하여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문법 학습 활동에서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 접속 부사로 대체하기

한국어의 다양한 품사 체계에서는 접속 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접속부사는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속 관계에 따라 상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 영화는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 그렇지만 제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이다.

→ 영화는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 하지만 제시간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이다.

(3)에서는 ‘그렇지만’과 ‘하지만’은 같은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접속 부사는 대체시키더라도 의미상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비슷한 의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접속 부사들이다.

- ▶ 시간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자
- ▶ 대립 관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 ▶ 인과 관계: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 ▶ 조건 관계: 그러면, 그럼
- ▶ 전환 관계: 그런데, 그러다가
- ▶ 대등 관계: 또는, 한편, 혹은
- ▶ 첨가 관계: 그리고, 아울러
- ▶ 예시 관계: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3) 단어 풀어쓰기

운게호이어(Ungeheuer, 1969)에 따르면 단어를 확장하는 것도 바꿔 쓰기의 한 유형이다. 다시 말해 단어를 설명하거나 풀어쓰기를 하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명료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 풀어쓰기는 바꿔 쓰기의 기술이 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정희, 2007:17)

(4)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표현을 풀어쓰면서 더 명료한 내용으로 바꾸고 있다. 이 방법은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의 풀어쓰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바뀌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어 바뀌 쓰기 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어 풀어쓰기는 빼 놓을 수 없는 항목이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휘 설명력과 표현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용어 활용하기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습관적인 말이다. 관용어는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가 특별히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에 흔히 하나의 낱말처럼 사용되며 일반적인 표현보다 표현 효과가 강하다. 관용어는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활동에서 자주 눈에 띄는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관용어 또는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 단어의 예이다.

- 쉽다 → 누워서 떡 먹다
- 기다리다 → 목이 빠지다
- 결혼하다 → 국수를 먹다
- 어렵다 → 하늘에 별 따기
- 바쁘다 → 눈코 뜰 새 없다

(5)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 요즘과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다.

위에서 제시한 단어들과 관용 표현들은 의미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단어보다 비유적인 성격을 지니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

3.4.2. 통사 바뀌 쓰기

통사 바뀌 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통사 구조 변형이다. 이 유형은 원문에서 제시한 문법 구조를 다른 유사한 문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 문법에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개의 문법 항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바뀌 쓰기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 세끼 밥은 꼭 제때 챙겨먹어라.
→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 세끼 밥은 꼭 제때 챙겨먹어라.
(이익섭, 2010:380)

(7)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것 같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모양이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올 듯하다.
→ 하늘에 구름 많은 걸 보니까 저녁에 비가 오나 보다.

(이윤진, 2004)

예문 (6)를 보면 ‘-더라도’는 ‘-아도’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넘나들

기도 잘 한다. 그래서 (6)에서는 ‘없어도’는 ‘없더라도’로 바뀌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리 것 같다’, ‘-리 듯하다’, ‘-리 모양이다’ 그리고 ‘나 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어 학습 현장에서 이 네 표현들은 같거나 비슷한 의미 기능을 한다고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문 (7)에서는 추측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이 네 표현은 하나의 문형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통사 구조 변형이라고 한다. (6)와 (7) 이외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배우게 되는 문법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닌 구조들이 훨씬 많다. 이를 정리하는 활동은 바꿔 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바꿔 쓰기 할 때 학습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가 비슷한 문법 구조들을 제시한 것이다.

문형	통사 구조	예문
1	·-것 같다 ·-모양이다 ·-듯하다 ·-나 보다/-가 보다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u>올 것 같다</u> .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u>올 모양이다</u> .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u>올 듯하다</u> . ·하늘을 보니까 저녁에 비가 <u>오나 보다</u> .
2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그 책 좀 빌려 <u>주셨으면 합니다</u> . ·그 책 좀 빌려 <u>주셨으면 좋겠습니다</u> .
3	·-다 보면 ·-다 보니까	·담배를 계속 <u>피우다 보면</u> 건강이 <u>나빠질 것이다</u> . ·담배를 계속 <u>피우다 보니까</u> 건강이 <u>나빠졌다</u> .
4	·-마져 ·-조차 ·-까지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 <u>조차</u> 가져가겠다고?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 <u>마져</u> 가져가겠다고? ·겨우 하나 남았는데 이것 <u>까지</u> 가져가겠다고?
5	·-아/어도 ·-더라도	·무슨 일이 <u>있어도</u>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u>있더라도</u> 내일까지 일을 끝내야 합니다.
6	·-아/어 버리다 ·-고 말다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u>풀어 버렸다</u> . ·그 친구들이 먼저 문제를 <u>풀고 말았다</u> .
7	·-아/어 보다 ·-(으)니 적이 있다	·예전에 요리를 <u>배워 봤어요</u> . ·예전에 요리를 <u>배운 적이 있어요</u> .
8	·-아/어지다 ·-게 되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점점 <u>좋아졌다</u> .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가 점점 <u>좋아지게 되었다</u> .
9	·-(으)러 ·-(으)려고 ·-고자	·한국어를 <u>배우러</u>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u>배우려고</u>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u>배우고자</u> 한국어 왔어요.
10	·-(으)리 만큼 ·-(으)리 정도	·머리가 <u>아플 만큼</u>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머리가 <u>아플 정도로</u>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11	·-(으)리 수 있다/없다 ·-(으)리 줄 알다/모르다	·한국 음식을 <u>만들 수 있어요?</u> ·한국 음식을 <u>만들 줄 알아요?</u>
12	·-고 ·-(으)며	·부모님은 교향에 <u>계시고</u>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부모님은 교향에 <u>계시며</u>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

13	·-기가 무섭게 ·-을/를 기다렸다는 듯 이	·지하철이 <u>오기가 무섭게</u>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지하철이 <u>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u>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다.
----	--------------------------------	---

<표 1> 의미가 비슷한 문형들⁶

이는 바뀌 쓰기 활동 시 통사 구조 변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사 구조 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문장 속에서의 의미 관계, 또는 문장 성분과의 의미 관계에 따라 제약이 나타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바뀌 쓰기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그 통사 구조들의 기능 및 의미 관계들을 밝혀 주어야 되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통사 구조 변형을 하도록 해야 한다.

3.2.2. 문장 바뀌 쓰기

문장 바뀌 쓰기는 문장 변형, 문장 보충, 문장 예시, 도입 표지, 내용 요약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문장 변형은 다시 문장 통합 및 분리 - 어순 변형 - 완전 다른 문장으로 변형이 있는데 여기서 본고는 문장 태 전환의 유형을 더 보충하여 문장 변형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내용 체계를 설계한다. 문장을 바꾸 쓰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장 구조와 문법 지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식 또는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문장 차원의 바뀌 쓰기의 몇 가지의 방법이다.

1) 문장 통합 및 분리

스테드(Stede, 1996)에서는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분리하고, 짧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바꾸 쓰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원인·결과 관계를 가진 문장들에서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인과 관계를 지닌 연결어미나 접속부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8) 세계의 원유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기름 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 세계의 원유 값이 많이 올랐다. **따라서** 국내 기름 값도 조만간 오를 것이다.

(9) 이 섬은 산과 내로 둘러 있어 아름답다. 또한 분위기도 아늑해서 살기

⁶ <표1>은 이윤진(2004)를 참고하였다. 이윤진(2004)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혼동하기 쉽거나 구별하게 어려워하는 한국어 문형을 의미가 비슷한 문형과 형태가 비슷한 문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문형은 바뀌 쓰기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문들은 이윤진(2004), 한재영 외(2007), 김효신(2007), 이익섭(2010), 허용 외(2010)에서 인용하였다.

참 좋을 것 같다.

→ 이 섬은 산과 내로 둘러 있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아늑해서 살기 참 좋을 것 같다.

사례 (8)과 (9)는 문장 분리와 통합의 예이다. 사례 (8)은 긴 문장을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원문의 앞 절과 뒷 절이 인과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여, 접속부사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사례 (9)의 경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다. (9)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이 호응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연결어미를 선택하여 바꿔 쓸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거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통합하는 바꿔 쓰기가 접속부사와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쓰기 활동에서 활용되는 접속 부사와 연결어미를 다음의 표<2>와 같이 정리한다.

의미 관계		연결어미	상응 접속부사
나열 관계		-고, -(으)며	그리고
시간 관계	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그러서
	순서	-고	그리고
	전환	-다가	그러다가
대립 관계		-(으)나, -어도, -지만, -는데/-(으)는데	그러나, 그러하나,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 관계		-아도/-어도, -더라도, -르더라도, -는데도	그래도, 그러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데도
인과 관계		-아서/-어서, -(으)니, -(으)니까, -(으)므로, -느라고	그래서, 그러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조건 관계		-(으)면, -(으)려면, -아/어야	그러면, 그래야, 그렇다면
목적 관계		-(으)러, -(으)려고, -도록, -게	그러도록
부가 관계		-는데다가, -고	그런데다가, 게다가, 그리고

<표 2> 비슷한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

위의 <표2>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연결어미와 접속 부사들을 의미 관계 별로 정리해 둔 것이다.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문장 바꿔 쓰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학습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문장을 통합할 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문장을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바뀌 쓰기는 접속 부사와 연결어미와 같은 문법 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문장 바뀌 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직접 접속 부사와 연결어미의 의미 관계를 밝힌 후, 문장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장의 태 전환

문장의 의미가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구조를 전환하여 나타낼 때에 태를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능동태의 글을 수동태로 바꿔 주면서 내용의 동일성은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는 피동문과 사동문이 매우 발달해 온 언어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피동문과 사동문을 전환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글을 바꿔 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10) 모기가 아기를 물었다.
→ 아기가 모기한테 물렸다. (이익섭, 2010:265)

(11) 나는 그 얘기가 통 믿기지 않는다.
→ 그 얘기가 통 믿어지지 않는다. (이익섭, 2010:273)

(12) 아기가 우유를 먹는다.
→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이익섭, 2010:276)

위에서 제시한 사례 (10)~(12)은 짝의 능동문과 피동문, 그리고 주동문과 사동문이다. 이 문형들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문법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뀌 쓰기 활동을 통해 주동문 - 피동문 - 사동문을 연습할 수 있다면 한국어 학습 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3) 어순 변형

어순 변형은 문장을 구성되는 성분들의 순서를 이동하여 다른 구문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즉 한국어 문형은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성분들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문장의 어순을 변형시키려면 성분에 붙인 조사도 바뀌어야 된다. 백봉자(2007)는 한국어 조사가 대단히 발달한 언어로서, 체언의 문법적 역할은 격조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순에 비교적 융통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사례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목적어 명사구 앞으로 이동하여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13) 가. 철수가 영이에게 책을 주었다.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나. 철수가 책을 영이에게 주었다.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다. 영이에게 철수가 책을 주었다. (부사어-주어-목적어-서술어)

라. 책을 철수가 영이에게 주었다. (목적어-주어-부사어-서술어)

(14) 가. 슬기는 철수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주어-간접 주어-보어-서술어)

나. 슬기는 철수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위의 사례 (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목적어 명사구 앞으로 이동하여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 (14)에서는 (가)의 내포문 주어 ‘철수가’는 (나)와 같이 모문의 목적어 ‘철수를’로 승격되었다. 또는 3장에서 제시했듯이 부사구의 위치를 앞뒤로 바꿔도 다른 문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순 변형시킬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형식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 (15)와 같다.

(15) 가. 다행스럽게도 그는 시험에 붙었다.

나. 그는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붙었다.

다. 그는 시험에 다행스럽게도 붙었다.

(15)에서는 부사구의 예문인데, 문장 부사어의 경우에 그 자리바꿈이 더 자연스러운 것은 그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까닭에 문장 앞이나 뒤에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그러나 부사어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만 부정 부사 ‘아니(안)’, ‘못’ 그리고 성분 부사 중에서 ‘잘, 좀’과 같이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있으나. 이들은 반드시 서술어 바로 앞에만 온다. 어순 변형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론에 기대어 논의하고 있는데 언어 교육의 화용적 전체에서 효과가 밝혀진 바도 있다. 다시 말해 어순 변형은 바꿔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쓰기

바꿔 쓰기에서 유의어 대체, 문법 대체 또는 일부분 바꿔 쓰기 이외에 학습자가 자신만의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여 원문의 문장을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제한 없이 창의적으로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장을 창출하되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야 한다.

(16) 가. 이 사회는 오랫동안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의 사다리로 간주해 왔다.

나. 대학 교육은 오랫동안 개인의 성공에서 디딤돌로 보아왔다.

다. 사회에서 개인의 성공은 대학 교육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믿어진다.

라. 우리 사회는 대학 교육을 개인의 성공 달성에 꼭 필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홍준기, 2011)

사례 (16)의 (나)에서는 ‘대학 교육’ 주어에 변화를 주었고, 몇몇은 다른 비유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하였다. (다)의 경우에는 (가)의 ‘개인의 성공’을 문장의 주어로 하여 변화를 주었고 ‘-로 간주하다’를 ‘믿어지다’로 표현을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라)는 (가)의 ‘사다리’를 ‘꼭 필요한 단계’로 바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사례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제시한 어순 변형, 유의어 대체, 통사 구조 변형을 통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새로운 문장들을 생성해 내는 바뀌 쓰기 활동을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으로 보충하고 텍스트 바뀌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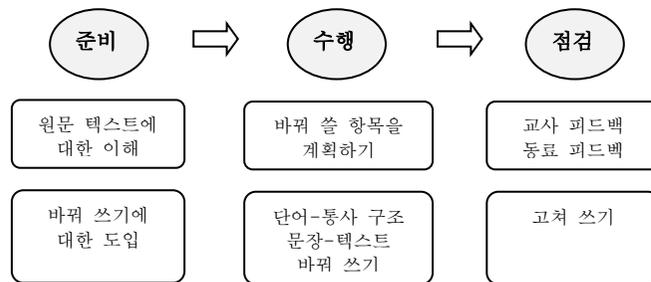
확장이나 축소에 의한 바뀌 쓰기는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이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정도와 텍스트 재표현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장 예시’나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해야 해야 한다. 이 유형들이 고정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문장 예시’나 ‘문장 요약’이나 ‘내용 요약 질문’을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표현으로 생성해내도록 한다. 학습자가 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들 간에 자연스러운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 활동의 수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련된 접속부사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예시’, ‘문장 요약’, ‘내용 요약 질문’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 부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문장 설명, 보충: 뿐만 아니라, 더구나, 게다가, 아울러
- ▶ 문장 예시: 예컨대, 이를테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 ▶ 문장 요약: 요컨대, 다시 말하며,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 결국
- ▶ 내용 요약 질문: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러나

3.3. 바뀌 쓰기의 활동

바뀌 쓰기 활동은, 주어진 텍스트를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원문 글을 자신의 문체와 언어로 재표현하는 활동이다. 효과적인 바뀌 쓰기 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바뀌 쓰기가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쓰기 기술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텍스트 재구성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함께 꾸준한 연습이 동반되어야 한다. 브라운(Brown, 2004)에서는 학습자가 사고의 윤곽을 만들고 원고 쓰기를 해보고 교정을 하면서 무엇을 쓸지를 계속 생각하고 교사와 동료로부터 피드백

받아 다시 쓰기를 통해 완성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원문 텍스트를 해석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하는 바꿔 쓰기는 학습자가 바꿔 쓰기의 전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결과물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는 바꿔 쓰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동료 학습자나 교사와 함께 토론하도록 한다.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최종 바꿔 쓰기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바꿔 쓰기에 대해 인식하고 독해를 통한 텍스트 이해 과정을 거친 후 바꿔 쓸 단어 차원, 문장 차원의 항목을 계획하며 교사나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자기 점검으로 글을 완성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바꿔 쓰기 활동을 위해 바꿔 쓰기 활동을 준비, 수행, 점검의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활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4> 바꿔 쓰기 활동의 절차

위의 <그림 4>은 바꿔 쓰기 활동의 절차인데 이는 준비 과정 - 수행 과정 - 점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꿔 쓰기 활동의 준비 과정에서는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과 ‘원문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은 학습자들에게 바꿔 쓰기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며, 바꿔 쓰기의 각각 유형에 대해서 예문과 함께 제시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를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는 단어 - 통사 구조 - 문장 - 텍스트의 순서로 제시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연습을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바꿔 쓰기에 대한 도입’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에게 원문 텍스트를 나누어 주고 그 원문 독해 과정을 거친다.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그 원문의 바꿔 쓰기를 수행 과정으로 가진다. 이를 위해서 바꿔 쓸 항목들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단어이든 통사나 문장이든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교사의 유도가 중요하다. 어떤 항목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항목을 원문보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항목들이 문맥과 맞고 적절하게 확장 · 축소 · 변형하는 방법을 교사가 지도하면서 학습자들이 바꿔 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문체로 바꿔 쓰기를 한 텍스트를 완성한 다음에는 점검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이 교사의 피드백으로 자신이 쓴 텍스트를 맞은 문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맞는 표현으로 썼는지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서로의 바뀌 쓴 항목과 그 수행 방법을 듣고 다양한 표현을 알아보며 그 피드백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재구성한 텍스트를 보완하도록 한다.

4. 맺는말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교실이라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단지 교사의 강의를 듣고 교재에서 나오는 문형이나 표현들을 따라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문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익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말하고 싶더라도 자신이 전달하려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교사나 한국인과 함께 하는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어 말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언어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고 있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단어나 구조를 적당히 표현하기 어려울 때,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대체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설명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고 동시에 표현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 줄 수 있는 바뀌 쓰기 활동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바뀌 쓰기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거론될 뿐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하지만 앞으로 바뀌 쓰기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베트남인 학습자를 비롯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인 학습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순희(2006),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과 수업 활동 유형,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5-40쪽.
- 김명희(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자습용 문법 학습 교재 모형 개발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199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교육 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5-112쪽.
- 김지혜(2009), 바뀐 쓰기를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민현식 외(2005),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 박성숙(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성원(2003), 고급 단계의 문법 학습 목표,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2-143쪽.
- 석주연(2008),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육, 박이정.
- 성화은(2011), 대학생 영어 쓰기에서 표절 예방을 위한 인용과 환언하기 훈련 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2006),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의 현황과 변천 과정 연구, 한국어 교육 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42쪽.
- 윤다운(2006), 바뀌말하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9), 텍스트 재구성을 통한 한국어 읽기 자료 방안 연구, -중급 단계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7),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론의 재고찰 -제2 언어 교수 이론에 바탕을 둔 교수 모형의 보완, 한국어 교육 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10쪽.
- 이성만(1998), 텍스트 이해에서 ‘바뀌쓰기’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5, 텍스트언어학회, 59-85쪽.
- 이성만(2002), 대화 텍스트에서 바뀌쓰기의 기능, -바뀌쓰기와 인접 제작성 방식들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독어독문학 24,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151-147쪽.
- 이윤진(2009),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형 제시 양상, 이중언어학 39, 이중언어학회, 213-237쪽.
- 이익섭(2010),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해영(2006), 한국어 교재를 위한 어휘 및 문법 학습 활동 유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5-56쪽
- 전영주(2007), 텍스트 기반 문장종결표현 지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전진애(2009),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의식 고양의 효과에 관한 연구, -피동표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태희(2000), 문형 학습을 통한 문장 구성력 신장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팜티튀린 (2012), “바뀌 쓰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문법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재영 외(2007),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허용 외(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홍준기(2011), 패러프레이즈 버스터, 종합출판.
- Malgazhdarova Ainur(2010),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바뀌말하기 전략 지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hrens, L.(2009), A Sequence for Academic Writing, Longman.
- Brown, H. D.(2007b),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권오량 외 역(2010),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제3 판, Pearson Education Korea).
- Cohen, A. D.(1998), Strategies in learning and using a second language, Longman.
- Cook, V. A.(1996),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Distributed in the USA by St Martin’s Press (경지영 옮김(2000), “제2 언어 학습 - 교수론”, 형설출판사).
- Eliis, R.(1994),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김윤경 역(1998), “외국어 습득론”, 한국문화사).
- Gleitman. L & Gleitman. H.(1971), Phrase and Paraphrase, Some innovative uses of language, W. W. Norton & Company.
- Gulich, E. & Kotschi, T.(1983), Les marqueurs de la reformulation paraphrastique, Cahiers de linguistique française 5.
- Gulich, E. & Kotschi, Th.(1987), Reformulierungshandlungen als Mittel der Textkonstitution, in Motsh, W., Satz, Text, sprachliche Handlung, Berlin.
- Harmer(1998), How to teach English, England: Longman.
- Kissner, E(2006), Summarizing, Paraphrasing, and Retelling, Skills for better Reading, Writing, and Test Tasking, HEINEMANN.
- Kotschi, T.(1986), Procédes d’évaluation et de commentaire meladiscursifs comme stratégie interactive, Cahiers de linguistique française 7.
- Smaby, R. M.(1970), Paraphrase Grammars, Formal linguistics series, Vol2,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Spada, N, & Lightbrown, P. M.(2006), How language are Learned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임병빈 외 옮김(2009), “외국어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는가”, E-Public).
- Tarone, E.(1977), Conscious communication strategies in interlanguage, TESOL Quarterly 77.
- Thornbury, S.(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이관규 외 옮김(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Thornbury, S.(2001), *Uncovering Grammar*, MacMillan.

Ungeheuer, G.(1969), Paraphrase und syntaktische Tiefenstruktur, *Folia Linguistica* 3.

Wunderlich, D.(1980), *Arbeitsbuch Semantik*, Frankfurt/M.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Method based on Paraphrasing Activities

Pham Thi Thuy Linh

This study has analyzed the using of the paraphrasing activities to improve learning Korean grammars skills for Korean learners. Through these analyses, we can find out the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and learning paraphrasing for Vietnamese students.

In the first chapter, I discussed about the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grammars of Korean learners. Also, I indicated the necessities of paraphrasing i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Then I introduced the prior methods and objects on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studied on the concepts and properties of paraphrasing; also the meaning of paraphrasing in theory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the second language. Then, I summarized the forms and principles of the paraphrasing activities; also the meaning and applicability of paraphrasing in teaching Korean grammars.

In the third chapter, I gave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paraphrasing to improve the ability of using Korean grammars for Korean learners. Then I introduced the teaching Korean system on paraphrasing activities and a model for paraphrasing classrooms.

In the last chapter, I generalized the theses mentioned on above chapters and the necessities of paraphrasing activities in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grammar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earners, Korean grammars use ability,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paraphrasing, teaching and learning paraphrasing activities

